



돌처럼 단단한 언어를 씹는 소리



〈원전유서〉 쓴 신예 극작가

김지훈

연극 〈원전유서〉(原典遺書)의 막이 내리고 배우의 소개로 김지훈

이 무대에 등장했을 때, 객석에서는 긴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연극계에 등장한 신예 작가에 대한 축하였다. 대학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하던 김지훈은 ‘그냥 써본’ 첫번째 희곡 〈양날의 검〉으로 이윤택에게 낙점되어 그길로 밀양 연극촌으로 내려갔다. 배우로, 스태프로, 신입단원의 고된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써내려간 희곡이 바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07년 창작예찬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원전유서〉다. 공연 시간만 4시간 30분. 죽히 책 한 권 분량을 채울 만한 희곡은 신인의 작품으로는 믿기 어려울 만큼 파격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 〈원전유서〉의 작가 김지훈을 대학로 아르코대극장에서 만났다.

글 김소연 본지 편집위원 | 사진 박정훈

돌을 씹다

점점 선명해지는 소리 / 규칙적으로 / “빠그작- 빠그작-” / 유리질 물질이 보다 단단한 물질에 덤비다 못 견디고 깨져버리는 소리 / “빠그작- 빠그작-”

쓰레기가 쌓이고 쌓여 산이 되어버린 곳. 문명의 찌꺼기가 거대한 지층을 이룬 쓰레기산에 토굴 같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작가의 말을 빌자면 ‘아이가 죽어 나무가 되는 이야기’ 〈원전유서〉는 돌을 씹는 소리로 시작된다. 사실 공연에서

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 희곡은 “빠그작-” 소리로 시작한다.

소리는 ‘커다란 고무통’에서 살고 있는 박공조의 것. 그는 어느 날 혼자 산에 올랐다 돌아와 열병을 앓은 후 정신을 놓았다. 사람들은 그가 혼을 빼앗겨 ‘반쪽’이 되었다 하고, 그의 아버 박구업은 행할 도리를 다 해도 어찌할 수 없자 “내 손으로 지은 따뜻한 제삿밥이라도 먹이고 싶다”며 그를 내쳤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그는 고무통에 버려진 몸을 담고 이가 부서져도 돌을 밥 삼아 씹으며 살아간다.



〈원전유서〉(김지훈 작, 이윤택 연출)의 한 장면. 사진 아르크예술극장 제공

박공조는 바로 죽어 나무가 되는 아이, 어동이의 아비다. 공조의 고무통은 식구들이 사는 집과 잇닿아 있는 공터 한켠에 있다. 정신을 놓은 공조의 자리에 들어앉은 우출은 시도 때도 없이 공조의 식구들, 어진네와 어진이, 어동이에게 폭력을 휘두른다. 물건 부셔지는 소리, 비명소리에 이어 화들짝 문이 열리면 ‘봉두난발’에 신도 제대로 꿰지 못한 어진네와 아이들이 공터로 튕겨져 나온다. 그러나 제 식구들의 처참한 몰골을 아는지 모르는지 공조는 여전히 돌을 씹고 있다. 우출에게 맞아 어진이와 어동이의 숨이 끊어질 때도, 도시의 사람들이 쓰레기산에 몰려와 쓰레기들을 벗겨낼 때도 공조는 고무통에서 돌을 씹는다.

세상에서 밀려난 이들의 이야기를 쓰면서, 작가

는 왜 이들의 가난한 살림에서마저 밀려난 ‘반쪽’이 된 공조의 돌 씹는 소리로 문을 열었을까. 〈원전유서〉의 극작가 김지훈을 만나면서 뒤늦은 물음이 떠올랐다.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지만, “정신은 맑았다”

김지훈에게 〈원전유서〉는 데뷔무대이다. 그냥 한번 써본 희곡 〈양날의 검〉이 2006년 대산대학문학상을 수상한 것이 극작 경력의 전부이다. 그러나 이 신예의 희곡에 연극계는 ‘지금까지 본 한국 희곡들 중에 가장 독특하고 독창적인 작품’이라는 열렬한 찬사를 보냈다. 기대 속에 드디어 막이 올랐을 땐 ‘희곡·연출·배우 삼박자를 갖춘 수작’이라는 호평이 쏟아졌다. 매번 공연이 끝나면 배우들의 커튼콜

에 이어, 어진네로 분했던 연희단거리패 대표 김소희가 직접 그를 무대 위로 불러 소개했다. 매 공연 작가가 무대인사를 한다는 것은 흔치 않은 광경이다. 이보다 더 화려할 수 없는 데뷔라 할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제 막 한 작품을 발표한 그의 소소한 성장기나 <원전유서>에 대한 작가의 변은 이미 적잖이 지면에 오르내렸다. 울산 태생인 그는 고교 시절 문학반 활동을 하면서 대산청소년문학상을 수상했고 2003년 신춘문예로 데뷔한 시인이기도 하다. 대학 수업 과제로 본 연극들에 실망하여 내쳐 스스로 써내려갔던 희곡이 덜컥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당시 심사를 했던 이운택의 권유로 휴학하고 밀양으로 내려가 연희단거리패에 입단한다. 고단한 극단 신입 생활을 하면서 일과가 끝나는 밤 10시부터 새벽 어스름할 때까지 두 달을 내리 써내려 탈고한 것이 희곡 <원전유서>이다.

그는 상복도 많다. 대산청소년문학상, 대산대학생문학상을 이미 수상했으니, 혹 대산문학상까지 수상한다면 국내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의 3관왕이 되는 셈이다. 명민한 문학청년의 탄탄한 성장기라 할 만하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그의 성장기를 들여다보자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처음 글을 써서 상을 받아 본 것이 중학교 때였어요. 수상작을 교지에 실는 거였는데, 어느 날 담당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다시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심하게 사춘기를 앓았는데 그때 머리에 물도 들이고 그랬거든요. 하고 있는 꼴이 이상하니 내가 쓴 것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 다시

글을 쓰고서야 교지에 실렸어요. 치욕적이었죠.”

그가 처음 재능을 인정받았던 기억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 세상이 그를 어찌 대하건 그는 입시가 일찍 끝나 놀 시간이 많다는 이유로 공고에 입학하고, 여학생 많다는 소문에 솔깃해서 문예반에 들었다. 백일장에서 상을 많이 타오니까 ‘백일장 하러 갑니다.’ 거짓말을 하고 수업도 많이 빼먹었다. 그때는 딱히 글 쓰는 것이 좋은지도 잘 몰랐었다. 점점 명민한 문학청년에서 그림이 멀어진 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의 말이 귀를 때렸다.

“하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작가는 오직 작가다

세상은 목표를 향해 남보다 한발 앞서 달려가라고 부추긴다. 그러나 작가는 그런 세상에서 한 발짝 비껴서 있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명민한 문학청년’이라는 그에 대한 선입견이 벗겨지는 것이 오히려 좋았다. 사춘기를 심하게 앓았다고 하지만 김지훈의 어쩔 수 없는 ‘삐딱이’ 기질은 생래적인 듯한데, 우선 희곡을 쓰겠다고 밀양으로 내려가 연희단거리패에 입단한 것이 눈에 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글쓰기는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중견이 된 작가들이 기행에 가까운 방향으로 문학적 자양분을 쌓았던 것과 달리, 최근 등단하는 작가들은 대부분 제도 교육에서 배출된다.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학교에 적응을 두고 있는 이들이 적잖은 세태를 보면 그의 선택이 눈길을 끌지 않을 수 없다. <원전유서>가 개막되기 전 작가며 작품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

들이 웅성거릴 때, 어디선가 불쑥 등장한 이 작가가 휴학하고 밀양에서 극단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그랬다. “학교 나와서 밀양 간 것만으로 난 50점 주고 불란다.”

연극을 하려면 극단생활을 해보라는 이운택의 권유에 그가 선뜻 밀양으로 나섰던 데에는 한편으로는 제도교육과 문학계 안에 갇혀 ‘스스로 정자를 짓고 그 안에 안주하는’ 문학에 대한 답답함도 있었지만, 이운택에 대한 신뢰도 컸다. 그의 첫 희곡 <양날의 검>에 대해 ‘최인훈 이후 한국적 심성과 정서가 완벽할 정도로 잘 결합된 수작’이라고 이야기한 이운택의 심사평은, 김지훈에게 단지 큰 격려의 수사만이 아니었다. 그 심사평이 없었다면 계속 희곡을 썼을지 자신도 모르겠단다. 책을 가려 읽는 편이라는 그에게 최인훈은 전집을 모두 독파한 유일한 작가다.

최인훈이 왜 그렇게 좋았을까.

“약력에 ‘작가’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와, 이게 정말 작가다. 진짜 이거다 싶었죠.” 잠시 말을 고르던 그의 대답은 이것이 전부였다. 학교에서, 혹은 작가들 틈에서 ‘스스로 정자를 짓고 그 정자 안에 갇혀 있는’ 문학에 무던히도 부대꼈다는 김지훈. 직분에 충실할 때 작가일 수 있다는 그의 말에는 글쓰기에 대한 진지함이 묻어난다.

문학이 바탕이 돼야 공연이 묵직해진다

그는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가 건건이 불편하다. 오늘도 수없이 오르내리는 연극들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다. 극작가이면서 이제까지 본 연극이 채 열

편도 안 된다는 그는 어떤 인터뷰에서 “연극이 모두 쓰레기 같았다”고 했다. 수사가 과장되었다고 사례를 치면서, 지금 오르내리는 대부분의 연극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한다. 굉장한 말들로 연극을 설명하지만, 정작 연극 속에는 굉장한 것이 없다. 형식이 아무리 새롭다고 해도 이미 다 있던 것들이다. 그는 안타깝단다.

“형식으로는 더 이상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왜 희랍비극을 여전히 하고 있겠어요? 생각해보면, 내 입장에서, 그 답은 간단합니다.”

현대연극은 상연과 희곡이 별개의 작품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시각적 이미지나 무대의 현존 그 자체를 텍스트로 받아들인다. 합리적이고 개연적인 플롯이 해체되고 언어가 극단적으로 해체되는 작업들이 이미 현대연극의 주류가 되어 있다. 하지만 김지훈은 연극의 구심점은 ‘이야기’와 ‘사유’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교에서 선생님들 말씀이 연극 많이 보고 좇아다니라고 해요. 하지만 내 생각은 반대예요. 무조건 많이 보는 것보다 정말 좋은 것 한 편 보고 느끼고 책을 읽고 쌓는 것이 더 나아요. 요즘 작품들을 보면 철학이나 사유가 정말 안 돼요. 너무 표면적이고 피상적입니다. TV드라마와 다를 게 없어요. 일단은 문학이 되어야죠. 문학이 되어야 공연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나는 확고하게 믿어요.”

‘확고한’ 그의 믿음에 탄지를 걸어보자. 이제 대중들은 모르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지 취향의 변화만이 아니다.



삶의 양태 자체가 표면적이고 부유하는 탓이다. 한편 권의 책을 놓고 우주론을 논하는 것은 이러한 양태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연극만이 아니라 문학 등에서 새로운 형식이 제안되는 것은 단지 예술가들의 폐쇄적인 탐미적 태도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와 연관된 것이다.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수용하겠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함께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소소한 일상을 재현하는 것에 머물러야 할까요?”

이제 막 출사표를 던진 신예 극작가의 결기만은 아니다. 연극은 이야기이고 연극의 사유는 바로 언어의 힘에서 비롯된다는 그의 확고한 믿음은 이 젊은 작가의 작품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장장 네 시간 반이라는 러닝타임만으로도 화제가 되었던 <원전유서>는 작품의 규모에 비해 사건은 단순하다. 끊임없는 욕망의 지층이라 할 쓰레기산도 인간이 덮고 서 있는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지식인 남전의 투쟁은 정작 지번(地番)이 생기자마자 욕망에 의해 파괴되어버림으로써 실패한다. 그리고 풍초를 받아내는 재떨이처럼 그 제어할 수 없는 문명의 찌꺼기와 같은 울분을 매일매일 때로 받아내던 아이는 죽는다. 예기치 않은 반전을 예비하는 사건의 복잡화는 없다. 작품의 부피감은 오롯이 언어에서 비롯된다. <원전유서>에는 매우 다양한 층위의 언어가 공존한다. 이야기의 문을 여는 남전과 점방네의 대화를 보더라도 그렇다. 보안등이 켜지고 마을 공터 평상 위의 남전과 점방네의 윤곽이

어렴풋이 드러나면서 시작되는 두 사람의 대화는, 중황으로 비약하는 남전의 사유와 점방네의 능청스러운 입담이 맨살 그대로 부딪친다.

작품의 부피감은 김지훈의 ‘언어’에서 비롯된다

<원전유서>의 말들은 사실 버겁다. 연극 초반에서는 더욱 그렇다. 점방네와 남전의 ‘독백’같은 대화는 그 말들의 유려함이 어디로 향하는지 불안하다. 사건의 전개와 맞물린 인물의 구축이라든가 극적 긴장과는 판이한 말들의 홍수에서 길을 잃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원전유서>를 끝내 지켜보게 만들었던 힘 역시 김지훈의 ‘말’이었다.

<원전유서>의 극적 목표는 스토리의 결말보다는, 서로 다른 층위의 언어들이 잇닿고 적층되면서 만들어지는 연극적 긴장에 있다. ‘말’들은 때때로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키고 우회하면서, 쓰레기산이라는 공간 속에서 하나하나의 삶과 그 삶이 빚어내는 사유의 공간을 거침없이 펼쳐놓는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김지훈의 언어에서 비롯된다.

사실 <원전유서>의 초고는 6시간 분량이었다. 현재의 모습으로 희곡이 재정리되기까지 김지훈의 말들은 무수히 잘려나갔다. 그는 특히 제일 많이 잘린 남전의 대사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너무 저리고 아파서” 잠도 오지 않았다는 그는 남전의 말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공연에서도 남전의 비중이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도 여전히 남아 있다.

남전에 대한 그의 애착에 시비(?)를 걸고 싶어,

언어가 너무 관념적이지 않느냐고 문자 곧바로 대답이 돌아왔다.

“이 세상에 남전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요. 남전이 있기에 관객을 이야기로 들여보내주잖아요. 남전에 대한 비판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도 남전이 있기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언어가 관념적이라는 말은 변명이에요.”

연극이 인간의 역사를 관통하는 사유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란단. ‘잘 만들었다, 아니다’라는 비평은 가능하지만, 남전의 말이 연극의 언어가 아니라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도 안다. 언어가 가진 창백함을. 기어이 매질을 당해 죽는 아이가 남전 유서는, 글자를 모르는 어진네가 노랫가락처럼 읊조리던 ‘ㄱ, ㄴ, ㄷ, ㄹ...’이었다. “유서는 인간의 일생이 담긴 가장 아름다운 글”이라 말하는 작가는 <원전유서>의 모든 말들을 말이 생겨나기 이전의 최소의 소리로 되돌려 놓았다. “삶이 너무도 혹독하기에 신화가 필요”하지만 그 혹독함을 견뎌내야만 우리는 신화를 회복할 수 있다. 혹독함을 견뎌내는 것. 그것은 언어의 단단한 힘만으로 가능하다.

다시, 돌을 씹다

연극은 인간이 스스로를 고양시키기 위한 투쟁의 장이라는, 그리고 그 투쟁은 단단한 언어에서 비롯된다는 돌 같은 그의 신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그는 세상과 무척이나 부대끼는 것 같다. “친구들, 그리고 극단에서도 ‘넌 왜 그러냐’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면 글

을 못 씹니다.”

대체 저 강건함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을 받은 듯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반항심?”이라고 짧게 답했다.

시대적 감수성이라는 미명으로 연극은 점점 일상에 대한 감각적 재현에 몰두하고 있는 시절에 그의 꿈은 영 딴 곳으로 날아간다.

“산속에 합숙소가 있고 공연장이 있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극보고 자고 또 일어나서 연극보고 그러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나이 들고 내가 쓴 게 봐줄 만한 것이 되면, 산속에서 하루 종일 보는 그런 연극을 만들고 싶어요.”

희곡을 열던 공조의 돌 씹는 소리는 어쩌면 세상에서 한 걸음 떨어져 연극에 대한, 언어에 대한 강건한 신념을 버리는 김지훈 스스로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는 큰 격려를 받았지만 세상이 항상 그의 신념에 박수를 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때로 그는 공조처럼 이가 부서지면서도 그 단단한 돌을 씹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러한 신념은 어진이의 죽음에 무력한 공조처럼 세상에 무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조처럼 그는 돌을 씹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돌 씹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글쓴이 김소연 본지 편집위원. 연극을 비롯한 공연예술 관련 비평을 해왔으며, 문화정책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월간 <민족예술> 편집위원, <컬처뉴스>의 편집장으로 일했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다원예술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